

1명의 생명이라도 1초라도 더 빠르게 바다위 생명 안전망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최재평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

육지처럼 병원이 흔하거나 가까이 있지 않은 바다나 섬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이 워낙 길다보니 혼란을 다루는 위급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송과정에서 환자가 위독해지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 이 때문에 해양경찰에서는 ‘바다 위의 생명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해 1명의 인명이라도 더 빠르게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OO씨(위도 주민)

“아버씨(남편)가.. (배를) 부르지 말라고.. 날 새면 가자고.. 밤에 전화하면 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돌아가실 줄은... 아픈사람이 아니었으니까..”

KBS NEWS “섬주민 200만명 아프면 속수무책” 인터뷰중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436곳. 이 가운데 의원급 병원이라도 있는 섬은 백령도와 소록도, 울릉도 단 세곳 뿐으로 섬지역의 의료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그래서 해양경찰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섬주민들과 바다의 응급환자들을 위해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육상(119)	해상(122)
응급처치	응급구조사	비 응급의료인
통신	전화, 휴대폰	위성통신
환자이송	구급차	선박, 헬기
병원도착	평균 30분	1~5시간 이상
응급구조사	12급 응급구조사	부족(승선3)

응급의료장비	기본, 전문	기초적(산소탱크)
중증도	상대적 낮음	상대적 높음
응급처치	기본→전문	기초적
의료지도	도입단계	시행 고려 중
원격진료	-	효율적

이는 그동안 응급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바다에서 육지의 병원으로 옮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던 대처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은 광역 위성통신망을 이용하여 경비정과 병원을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함으로써 초음파나 심전도 검사등의 데이터를 의사가 보고 진료를 지시하면 응급구조사가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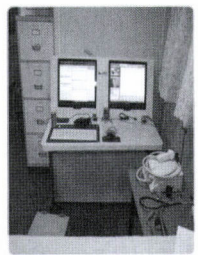
이 시스템의 실시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명은 매년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지까지 환자들을 이송할 필요 없이, 실시간 화상 연계를 통해 경비정 위에서 즉시 의사의 전문적인 응급조치를 실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8월 길병원과 함정간 화상 원격구급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로 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공기부양정 2호



P-12정



3005함

선박에 설치된 응급의료 시스템

보건복지부 길병원과의 MOU를 체결하는 등 해양응급의료시스템의 본격적인 시동을 건 해양경찰청은 2009년도에만 함정 11척, 응급의료센터 2개소, 해경서 현장모니터 장비 2개소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12년

이후에는 모든 함정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길재단과의 MOU체결



보건복지부와 MOU체결

《연도별 구축추진 계획안》

구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이후
함정	276척	3척	11척	25척	36척	201척
헬기	9대	-	-	1대	2대	6대
122 구조대	14개소	-	-	1개소	13개소	-
소요 예산	26190 억원	2천 만원	9.7 억원	30 억원	51억	169.3 억원

해양경찰의 해양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은 그동안 의료 혜택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민과 섬 주민들은 물론, 해상활동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순이 아빠의 응급이송 사례

